

중국에서의 한반도 지리에 관한 연구동향*

田 景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본문은 지난 20여년간 중국 학자들이 한반도에 대한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토대로 학문 일반의 연구 동향, 그리고 지리학에 관해서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분류하여 그 연구동향을 살펴보려 한다.

1.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

여타 학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학자들이 한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後 北과는 정치적으로는 비록 긴밀한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양국은 他國과 교류, 연구한다는 분위기가 거의 없었던 환경이어서 상호 학술적인 교류도 매우 적었다. 한국과는 이데올로기상 적대관계에 처해있었고 그 위에 중국이 오랫동안 鎖國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70년대 후반 한국과의 교류는 경제분야에서 시작해 80년대 그 교류가 확대되었고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강원도 춘천 착륙 사건으로 중국은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1986년 아세안 게임, 1988년 올림픽에 중국이 참가한 이후 민간 교류를 넘어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그 後 중국은 경제상에서 상호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해 다분야적 연구에 착수했으며 연구간행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연구간행물은 대부분 경제분야를 다룬 것들이다. 1979-1992년 사이 즉 중한수교 前까지 중국 내 학술지에 掲載된 한국의 정치, 법률, 경제 등에 관한 논문이 300여 編에 달하는데, 그 중 경제에 관한 논문이 약 80%를 점했다. 같은 시기에 경제에 관한 전 문서적과 편저는 약 20여권에 달했고 그 중 주요한 것은 「南朝鮮涉外經濟法令匯編」; 「南朝鮮10大産業」, 「戰後南朝鮮經濟」, 「南朝鮮經濟的騰飛」 등이다. 그 외에 한반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서적들도 일부 출판되었는데 「朝鮮」, 「南朝鮮」, 「朝鮮知識手冊」, 「南朝鮮概觀」 등이다.

전반적으로 한중수교 以前 한반도에 관한 간행물들은 대부분 경제분야에 편중되어 있었고 그 외 정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간행물은 극히 소수였다.

1992년 8월 중한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특히 한국에 대한 연구가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현상을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반도에 관한 연구기관이 많이 신설됐다. 1991-1995년 사이 북경대학, 복단대학, 산둥대학, 항주대학, 중국사회과학원, 길림대학, 연변대학 등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선후로 [韓國學研究센터], [韓國研究所]를 설치해 각자 특색 있게 연구활동을 벌여 나갔다.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은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및 언어문학에 置重했으며,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은 한국 임시정부, 중한관계사 및 한국현대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남북한 연구에서 연변대학교의 역할이다. 1979년 [中國 朝鮮歷史研究會], [中國 朝鮮文學研究會], [中國 朝鮮語研究會] 등 全國의인 학술기관이 연변대학교에 설치 됨에 따라 中韓修交 前 當校는 명실공히 남북한 정보의 허브로 작용하였으며 수교 후 중국 내 타 기관들도 많은 도 경을 이용해 남북을 접촉하고 연구하고 있으나 핵심 멤버들은 거의 當校 졸업생들이다.

둘째, 연구간행물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연구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에서 발행하는 “韓國學論文集”, 복단대학 한국학 연구중심의 “韓國研究論叢”, 항주대학

* 이 연구 작업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에 중국 연변대학 지리계 김석주 교수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연구소의 “韓國研究”, 요녕대학 한국중심의 “韓國研究論叢”, 연변대학교의 조선·한국학연구중심의 “朝鮮學, 韓國學與中國學”, 중국사회과학원의 “當代韓國”,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중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발행하는 “高麗亞那(KOREAN)” 등이 있다.

셋째,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中韓修交 以後,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관련정보 수요량이 급증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학술 연구간행물도 속속 출간되기 시작했다. 중국 研究者들은 前에 일본과 구소련 等 隣接國에 대한 연구경험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빨리 入門 할 수 있었다. 일부 도서관의 자료통계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96년 사이 한국관련 단행본과 번역본이 약 300여종 출간되었는데 그 중 절대대부분이 중한수교이후 출판된 것으로서 분야별 전문연구, 인물전기, 자료색인, 논문집, 회고록, 자료집, 기행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다양한 형식의 학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84년 12월 當時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홍일식 박사는 연변대학교 총장 박문일 교수를 미국에서 만나 [중한대사건] 감수를 중국학자들이 맡을 것을 합의함으로써 중한 양국 학자들간의 合作이 물위로 浮上함을 示唆했다. 1986년 한국사회과학원 이사장 이준화 박사와 북경대학 東洋言語학과 양통방교수는 LA에서 만나 학술교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89년 2월 연변대학교 총장 박문일 교수는 캐나다 방문 귀국도중 한국에 들려 인하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었으며 1991년 8월 서울대 김종운 총장이 연변대학교를 방문 하여 兩校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同年 요녕대학의 풍옥충 총장도 중국대학 중 한족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1년에 북경대학은 [조선역사문화연구소] (후 한국학연구센터로 개칭)를 當校史上 처음으로 설립했다.

2. 한반도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동향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리학적인 연구는 여타 학문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역사학과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 지리학이 여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또 한반도의 지리학계와 교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때문에 지리학 연구동향은 細分化하기는 어려워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지리학에 대한 연구동향

자연지리학에 대한 연구 成果物 中 비교적 일찍 한 간행물로는 「朝鮮」(1929)과 「今日之韓國」(1946)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대한 개괄적인 저서로서 한반도의 自然地理 상황에 관해 간략히 다루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한반도의 지리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저서라고 하겠다. 1949년 後에도 역시 한반도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매우 적었다. 주요한 연구성과로는 한국의 근해 석유자원개발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룬 “南朝鮮近海石油資源開發近況”(1983), 한국의 광산자원의 분포와 매장량 및 개발상황을 다룬 “南朝鮮的鑛產資源概況”(1983), 중국 동부와 한반도 지괴구조단원을 다룬 “中國東部與朝鮮大地構造單元對應劃分”(1995), 북한 안주분지의 석유자원의 지구화학적 특성을 다룬 “朝鮮安州盆地原油地球化學特性”(1995), 중국 산둥지역과 한반도지역의 지진발생의 聯關性을 다룬 “山東地區與朝鮮半島地區地震的相關性”(1997), 중국과 한반도 대지의 오르도비스기 지층을 다룬 “中朝地臺奧陶系層序地層序列及其對比”(1999), 한국 해양자원의 개발현황과 특징 및 금후의 발전전망을 다룬 “韓國海洋資源開發的現況、特徵及今後展望”(2000), 한국 카르스트지형 중 석회암동굴의 분포상황과 개발 및 보호를 다룬 “淺談韓國的溶洞保護與開發”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과 지질학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형학, 기후학, 수문학 등 자연지리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는 완전공백상태다. 둘째, 지질에 관한 연구도 순수 한반도지질 연구보다 중한 양국의 상호위치 즉 지리상 인접관계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셋째, 자원에 대한 연구는 모두 개괄적인 논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는 자연지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었음을 시사한다.

2) 인문지리분야에 대한 연구동향

인문지리학 연구는 자연지리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본 문은 중국에서 발행하는 주요한 地理學術志인 《世界地理研究》, 《人文地理》, 《經濟地理》, 《地理學研究》, 《地理科學》 등과 한반도 경제 상황에 대해 많이 다루는 《東北亞研究》, 《東北亞論壇》 등에 게재된 논문 및 地理學關聯 內容을 다룬 기타 단행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동북아경제권 관한 연구

인문지리학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역시 경제지리학 및 그 관련 부분이다. 이는 중국이 70년대 이후 급속히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감각하고, 또한 양자간의 경제 상호 보완성을 인식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동북아경제권 구상이 그 윤곽을 나타냄에 따라 한국과 북한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주요한 성과로는 북한의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徐文吉, 1996); 亞太地域 및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특징과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방향(黃平, 1997); 북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구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협력관계(張世和, 1997) 등이 있다.

② 중한 양국 경제관계에 관한 연구

중한수교와 북의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구의 지정은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경제교류 활성화로 작용했으며 아울러 학적인 연구도 활성화 시켰다. 주요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交通輸送분야의 협력에 관한 연구(米德長 외, 2000); 山東반도의 外資利用과 국제산업 관련연구(樊杰 외, 1999); 요녕성과 한반도 경제무역협력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于天福, 2000); 산둥반도와 한국간의 경제무역협력에 관한 연구(任建蘭, 1995) 등이 있다.

	한국에서의 중국의 위상	중국에서의 한국의 위상
교역	93년 3위 → 2001년 3위	93년 6위 → 2001년 4위
투자	93년 2위 → 2002년 8월 현재 1위	93년 8위 → 2001년 6위
민간교류	중국인 한국행: 99년 20만명 → 2001년 48만명	한국인중국행: 92년 9만명 → 2001년 110만명

<표 1> 수교 이후 10년간 중한 상호위상 변화

③ 한국의 해외투자에 관련된 연구

한국경제의 급성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가속화 해 隣接國인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주요한 연구로는 한국 및 기타 외국투자기업의 분포, 성격, 경영의 비교분석(李淑霞, 1997);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득과 실에 관한 연구(丁曉燕, 199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 전략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黃勝濤, 1997); 일본과 한국 기업의 대중국투자 입지행위와 투자패턴에 관한 연구(張文忠, 1999); 한국의 對山東省에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江心英 외, 2000) 등이다. 以外 한국기업이 對중국 투자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룬 王志樂 (1996)의 단행본도 있다.

④ 한국 인문지리학에 대한 연구

이 분야의 연구는 한국의 인문지리학 발전현황을 중국에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安虎森 (1998)의 한국 경제지리학과 취락지리학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경제지리학을 농업지리학, 공업지리학,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으로 분류하여 각 분야의 연구동향과 금후의 발전추세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의 취락지리학의 발전상황에 관해서는 취락의 입지와 구조, 형태 및 발전추세에 대해 다

기업	주요 진출지역 및 업종	특징 및 전략
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천진: 전자, 전기 - 상해, 소주: 가전, 반도체, 금융(보험) - 광둥성(동관, 심청, 혜주): 전자,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전자업종 위주 - 고부가가치 분야 지향 · 휴대폰, TFT-LCD, 디지털가전 - 중국내 '제2의 삼성' 구축 · 생산기지를 넘어 전략시장으로 인식, 고급브랜드로 차별화
L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천진, 상해: 전자, 부품, 통신 - 호남성 장사: CPT, CDT - 혜주: VCD, CD - 영파: ABS, 천진 : PVC - 항주: 생활건강(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전, 생활화학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품목이 다수 -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중시 (철저한 현지화 지향) - 중국법인을 제2본사로 육성
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SK텔레콤 - 상해: SK차이나 - 상해: 벤처인큐베이터센터 - 청도: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중국기업화 지향 · 중국속의 SK - 현지법인 대표에 중국인 인명 - IT(통신서비스)분야 중점
현대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북경자동차공업집단과 합자 계약 - 강소성: 자동차 생산법인 - 부품공장 계획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중국총괄본부의 기능 강화 - 현지 생산체제 조기구축
포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련, 순덕: 강관 - 서부대개발 가스수송사업 입찰 성공 (강관용 핫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신증설 계획 - 발전소, 철도, 수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심 - 판매시장 및 원료공급기지
롯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롯데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점 설립 검토

<표 2>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진출 현황과 특징

루었다.

⑤ 기타분야에 대한 연구

이외에 한국의 자동차공업 발전현황과 세계시장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史同廣 외, 1997); 북한의 대외무역구조에 대해 다룬 鄭京淑 (1995) 의 연구; 한국의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다룬 王曉文 (1994) 의 연구; 한국 서해안 新萬金干拓地 개발현황 및 環黃海經濟圈의 발전추세를 다룬 申文植 (1999) 등의 연구; 한국의 첨단산업정책이 경제발전애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王立軍, 1998); 북한의 경제현황과 발전추세를 다룬 劉強 (1999) 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 한반도에 대해 다룬 단행본들에 일부 지리학적인 내용과 지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단행본들도 보이는데 여기에는 「飛躍發展中的朝鮮社會主義建設」, 「韓國經濟發展的經驗與教訓」, 「南朝鮮」, 「簡明韓國百科全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經濟」,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등이 있다.

위의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아낼 수 있다. 첫째, 인문지리학분야 중 경제지리에 관한 연구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셋째, 한국에 대한 연구가 북한에 대한 연구보다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연구는 거의 중한 수교이후, 특히 중한 경제교류가 쾌속 발전을 이룬 최근 몇 년 사이의 연구가 대부분을 점한다.

3. 중국, 남북 지리학자들간의 학술교류

중국과 남북 지리학자들간의 학술교류는 비교적 일찍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중국과 남북한 지리학자들간의 학술교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 졌던 곳이 연변대학교다. 이는 연변대학교 지리학부의 존재의 의미를 한층 깊이 認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연변대학교의 지리적인 위치, 동일언어, 중국 내 개방환경 등이 중국과 한반도 지리학자들간의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중국과 남북한 지리학자들간의 처음 만남은 1991년 8월에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된 인문지리학국제학술심포집이 었다. 현 대한지리학회 회장 이기석 교수가 그때 한국측 대표단을 인솔해 회의에 참석했었다. 이를 계기로 연변대학교와 한반도지리학자들간의 교류가 빈번했으며 두만강개발연구를 테마로 중한지리학자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 되었었고 표로 정리보면 아래와 같다.

학술대회명칭	개최일	참가국	인수
국제인문지리학술심포집	1991.9	중국, 한국, 북한, 캐나다	50
인문지리학과 지역개발	1992.8	중국, 한국, 미국	42
동북아국제지질학술대회	1994.8	중국, 한국	20
동북아지역개발학술회의	1995.8	중국, 한국, 일본	29
중국과 북한 환경보호학술회의	1997.12	중국, 북한	23
동북아경제개발과 환경보호	1998.8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	80
동북아국제지질학술대회	2000.7	중국, 한국	54

<표 3>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주최 국제학술회의(中韓공동주최 다수임)

위의 표에서 보아 낼 수 있는 바, 연변대학교는 중국과 남북한 지리학자들이 만남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또 중국조선족이 남북통일을 위한 기여라 할 수 있으며 언어, 문화의 동질성이 이를 뒤 바침 한 예이기도 하다.

저자신이 1986년12월17일부터 1주일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고대 홍일식, 동국대 형기주 등 교수들을 만나 뵙고 한국의 지리와 기타 분야의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다. 그때 가져 간 지리학저서 34권이 중국 지리학계에 한국지리를 소개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었다. 기억에 남은 저서로는 형기주의 박사학위 논문 (불문), 지창룡의 <<한국지리총람>>, 홍시환의 <<지리학사>>, 저자? <<취락지리학>>, 이기석의 <<한국지리논문목록>>, 권혁재의 <<지형학>>, <<한국지리>>, <<자연지리학>>, 이찬의 <<세계지도>>, 대한지리학회지 多數, 한국교육지리학회지 多數 등이 었다. 제일 인상적인 었던 것은 이찬 선생님의 <<세계지도>>였는데 편집의 質, 수록 된 information, 특히 인쇄기술 등이 당시 중국 사정에 비해 상당히 우월함을 느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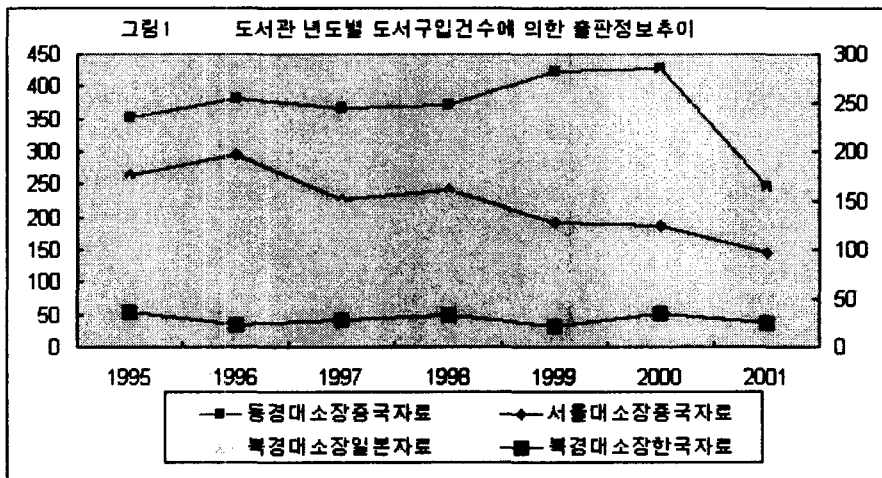
4. 맺는 말

이상 중국 학자들이 한반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동향과 지리학적인 연구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중한수교 이후 한국에 대한 연구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歐美日연구에 비해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 2001년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中韓日 三國사이 상호 소지하고 있는 도서정보의 量적 차이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 중국 所持 한국관련자료는 거의 없다 싶이 했다 (그림1 참조). 즉 한국에 대한 重視度는 일본을 대함에 비해 상당히 뒤진 상태고 中日修交 30년, 中韓修交1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時間代別로 비교해 보아도 한국에 관한 연구는 후진 상태임은 틀림없다. 북경대학 Academic Journal 을 보면 한국관련 논문을 제외하고는 한국자료인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경대 교수들과 “韓流”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니 아예 화제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 negative 한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중국인들의 대중화사상이 아직도 그대로이고; 둘째, 언어장애로 인해 지식층이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으며(표4 참조); 셋째, 한국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이 결핍 하다고 본다. 80년대 중반 일본은 당시 外相 오오히라 (大平正芳)는 자기 이름으로 命名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국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엘리트들을 일본에 데려다 연수 시켰는데 그 프로그램은 7년 지속되었다. 현재 한국은 매년 30-60명 사이에서 중국인들을 연구 시키고 있는데 반은 재중동포의 어학교육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지리와 學에 관해서는 연변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大衆교육적 의미에서의 한국지리에 관한 책자는 거의 전무, 단 <<朝鮮, 韓國地圖冊>>이 유일한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제안을 한다면 첫째, 한국정부 및 사회전반이 對중국 “알림의 캠페인” 벌리되, 특히 지식층에 한국을 인식시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한국 지리학계가 앞장서서 한국문화, 지리 시리즈를 번역출판 해 대학생, 교수를 主 상대로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개방 된 중국은 한반도를 알아야 하고 한반도 중국을 알아야 한다. 월드컵과 부산 AG가 한국을 중국에 많이 알렸지만 일시적인 感知가 더 많이 작용하는 사건이어서 대학교 교과서의 작용을 대체 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교류는 서로의 필요를 전제로 하겠지만 밸런스가 맞는 교류야만이 튼튼한 교류기반을 다져 갈 수 있다는 점은 自他共認 하는 도리다. 이에 중국 지리학도들도 한몫을 堪當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參考文獻

- 江心英等, 韓國對山東省直接投資研究, 世界地理研究, 2000年 第3期
- 吉林省社會科學研究院朝鮮研究所編, 「南朝鮮涉外經濟法令匯編」, 1980
- 顧銘學, 朝鮮知識手冊, 遼寧民族出版社, 1985
- 羅斌杰, 朝鮮安州盆地原油地球化學特性, 石油學報, 1995年 第4期
- 羅寶坤等, 南朝鮮概觀, 遼寧民族出版社, 1988
- “南朝鮮的鑛產資源概況”, 地質科學動態, 第17期, 1983
- 米德長等, 中國, 俄羅斯, 朝鮮運輸合作的條件與前景分析, 世界地理研究, 2000年 第1期
- 潘公昭, 今日之韓國, 中國科學圖書公司, 1946
- 樊杰等, 利用外資與發展國際產業聯系--山東半島韓國投資企業典型調查分析, 地理科學, 1999年 第1期
- 史同廣等, 競爭優勢理論與韓國汽車工業, 人文地理, 1997年 第4期
- 史曉穎等, 中朝地臺奧陶系層序地層序列及其對比, 中國地質大學學報, 1999年 第6期
- 徐文吉, 朝鮮的對外開放與東北亞區域經濟合作, 東北亞論壇, 1996年 第1期
- 石源華, 中國韓國學研究的回顧與展望, 當代韓國, 第33期, 2002
- 世界知識出版社編輯, 飛躍發展中的朝鮮社會主義建設, 1959
- 中文植等, 韓國西海岸新萬金國際自由經濟區開發現況及展望, 東北亞論壇, 1999年 第1期
- 潘善洪, 韓國研究中文文獻目錄, 杭州大學出版社, 1994
- 安虎森, 南朝鮮經濟的騰飛, 延邊大學出版社, 1990
- 安虎森等, 韓國經濟地理學研究現狀和趨勢, 人文地理, 1998年 第3期
- 安虎森等, 韓國聚落地理學研究狀況和趨勢, 人文地理, 1998年 第1期
- 楊振乾, 朝鮮, 商務印書館, 1982
- 楊永驩等, 南朝鮮, 世界知識出版社, 1985
- 楊學忠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經濟, 吉林大學出版社, 1994
- 王立軍, 韓國發展高科技產業的對策, 東北亞論壇, 1998年 第2期
- 王志樂, 韓國企業在中國投資, 中國經濟出版社, 1996
- 王曉文, 韓國區域發展戰略研究, 經濟地理, 1994年 第2期
- 于天福, 遼寧省與朝鮮半島經貿合作發展研究, 經濟地理, 2000年 第2期
- 劉強, 朝鮮經濟: 危機中出現新趨勢, 東北亞論壇, 1999年 第1期
- 李東旭等, 韓國經濟發展的經驗與教訓, 延邊大學出版社, 1997
- 李相文等,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 李淑霞等, 韓國與其它外國直接投資在中國的比較分析和綜合評價, 中國管理科學, 1997年 第3期
- 任建蘭, 山東半島與韓國的經貿合作分析, 世界地理研究, 世界地理研究, 1995年 第1期
- 張文忠, 日資和韓資企業在華投資的區位行為和模式研究, 經濟地理, 1999年 第5期
- 張世和, 戰後南朝鮮經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 張世和, 朝鮮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區的開發與東北亞區域國際合作和發展, 1997年 第1期
- 張耀光等, 韓國海洋資源開發的現況、特徵及今後展望, 世界地理研究, 2000年, 第3期
- 鄭京淑, 朝鮮對外貿易結構研究, 世界地理研究, 1995年 第1期
- 鄭判龍等, 簡明韓國百科全書,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9
- 丁曉燕, 韓國對外直接投資的成功與失誤, 東北亞研究, 1995年 第1期
- 刁守中, 山東地區與朝鮮半島地區地震的相關性, 華南地震, 1997年 第3期
- 蔡乾忠, 中國東部與朝鮮大地構造單元對應劃分, 海洋地質與第4期地質, 1995年 第1期
- 海洋地質調查局, 南朝鮮近海石油資源開發近況, 海洋地質調查動態, 1983年 第7期
- 黃勝濤, 韓國對外直接投資的區位選擇, 世界地理研究, 1997年 第2期
- 黃炎培, 朝鮮, 商務印書館, 1929
- 黃平, 東北亞地緣政治特點與中韓經貿合作趨勢, 人文地理, 1997年 第1期

書名	作者	出版社	出版社時間	定價
《韓國國會》	韓大元編著	華夏出版社	2002年1月1日	22.00
《三·三 技法辭典》	[韓]韓國棋院編	人民體育出版社	2001年9月1日	15.00
《韓國總統金大中傳》	李金澤 外	新華出版社	2001年9月1日	23.00
《韓國行政改革的神話與邏輯》	(韓)金榮桴 外	國家行政學院出版社	2001年9月1日	18.00
《國外小學教育考察叢書-韓國小學教育考察(第三卷)》	羅汝訓	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年7月1日	7.00
《韓國稅制》	財政部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1年7月1日	18.00
《2000 韓國建築設計競賽年鑒》	(韓)建築雜誌社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2001年6月1日	198.00
《韓國之旅》	李鴻鵬編著	廣東旅遊出版社	2001年6月1日	25.80
《整合營銷傳播戰略管理》	(韓國)申光龍著	中國物資出版社	2001年6月1日	30.00
《2000 韓國建築設計競賽年鑒》	(韓)建築雜誌社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2001年6月1日	198.00
《2001 韓國建築設計競賽年鑒》	(韓)建築世界編	天津大學出版社	2001年3月1日	596.00
《名家白描-韓國樣》	韓國樣	廣西美術出版社	2001年2月1日	22.00
《高手欺着破解-韓國棋院推荐暢銷叢書之二》	李哲勇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2001年2月1日	13.00
《韓國語基礎會話》	金忠實編著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0年11月1日	14.60
《韓國風情景》--英漢對照	陳雪鴻編著	東方出版中心	2000年10月1日	9.00
《韓國》	[(日)地球の歩き方編集室著	中國旅遊出版社	2000年10月1日	56.00
《韓國旅遊圖》	李安強	中國地圖出版社	2000年9月1日	3.00
《夏旦大學韓國研究叢書-韓國研究論叢(第七輯)》	本社	社會科學出版社發行部	2000年9月1日	24.00
《朱子家禮與韓國之札學》	(韓)盧仁淑著	人民文學出版社	2000年8月1日	10.80
《韓國輕型客車維修手冊》	(韓)金漢鎮外	遼寧科學技術出版社	2000年7月1日	45.00
《韓國經濟文選》	李正秀	對外經濟貿易大學	2000年7月1日	12.00
《韓國學概論》	李晶編著	遼寧大學出版社	2000年6月1日	20.00
《實用中級韓國語》	周賓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0年2月1日	10.50
《東方著名哲學家評傳-韓國卷》	李平	山東人民出版社	2000年1月1日	33.50
《世界之旅-韓國》	金良波	旅遊教育	1999年11月1日	9.50
《韓國與韓國人》	朴鐘錦	旅遊教育	1999年9月1日	14.00
《韓國紀實小說-廢緣未了》	權亨術	中國文聯出版社	1999年8月1日	12.80
《韓國圍棋名局詳解叢書-后生可畏》	李昂	中國社會出版社	1999年7月1日	18.00
《鏡之為海 國之為舟 韓國財閥現場象》	陳洲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1999年5月1日	24.00
《國民素質考察報告叢書-韓國國民素質考察報告》	李紅杰	廣西人民出版社	1999年4月1日	15.00
《韓國流精萃300局-韓國圍棋作職體系揭秘》	本社	上海書店	1999年4月1日	35.00
《韓國四大天王-曹薰鉉對局集》	陳兆峰	蜀蓉棋藝出版社	1999年2月1日	32.00
《朝鮮 韓國地圖冊》	本社	中國地圖出版社	1999年1月1日	13.00
《朝鮮 韓國》	本社	中國地圖出版社	1999年1月1日	6.00
《韓國大宇轎車維修手冊》	高景哲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年1月1日	48.00
《韓國語外來語詞典》	姜信道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1998年12月1日	98.00
《外國人怎樣教育孩子叢書-韓國人怎樣教育孩子》	張理智	昆侖出版社(解放軍文藝出版社)	1998年12月1日	7.00
《韓國現代SONATA轎車維修手冊》	劉艷麗	北京理工大學出版社	1998年10月1日	26.50
《韓國啓示象》	李立緒	企業管理出版社	1998年9月1日	25.00
《第三十五期最高位戰-韓國新聞棋戰對局細解》	李昂	文化藝術出版社	1998年8月1日	17.0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李昌鎔官子技巧(第三卷)》	李昌鎔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8年6月1日	12.0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李昌鎔官子技巧(第二卷)》	李昌鎔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8年6月1日	11.5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曹薰鉉最新定式-第一卷》	曹薰鉉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8年6月1日	11.0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曹薰鉉最新定式-第二卷》	曹薰鉉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8年6月1日	10.5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李昌鎔官子技巧-第一卷》	李昌鎔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8年6月1日	12.0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李昌鎔新手新型(第二卷)》	李昌鎔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7年8月1日	10.5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欺着的攻與防》	陳啓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7年8月1日	11.0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曹薰鉉布局技巧(上)》	曹薰鉉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7年8月1日	10.50
《韓國圍棋暢銷書系列-圍棋最新攻防變化(第二卷)》	陳啓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7年8月1日	11.0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李昌鎔新手新型(第一卷)》	李昌鎔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7年8月1日	10.50
《韓國現代文學》	徐永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1997年8月1日	9.50
《韓國圍棋暢銷書系列-曹薰鉉布局技巧(下)》	曹薰鉉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7年8月1日	10.50
《韓國圍棋奇人秘譜》	本社	蜀蓉棋藝出版社	1997年1月1日	9.60
《韓國語中級教程》	安炳浩	北京大學出版社	1996年12月1日	14.80
《家庭美食系列-韓國風味》	焦守正	中國建材工業出版社	1996年2月1日	10.50
《韓國超級棋星名局賞析》	程曉流	人民體育出版社發行部	1994年9月1日	17.00
《實用初級韓國語》	周賓,安熙珍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4年3月1日	12.80
《韓國語入門》	苗春梅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90年1月1日	15.90

< 丑 > 北京圖書大廈 韓國圖書買賣件數 (總58件, 1990.1.1-2002.1.1)